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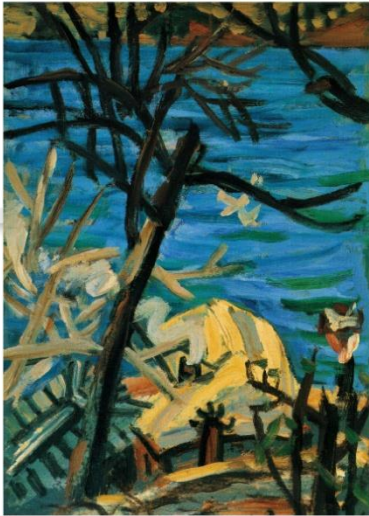
## 유명한 무명

July,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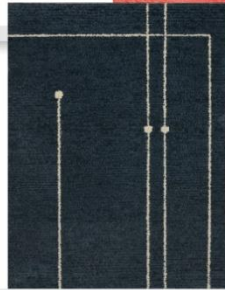
### EXHIBITION

# Art & Design Now

눈과 귀를 열어두고 《에비뉴엘》이 전하는 문화 예술계 소식에 주목하라. 예술을 가까이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삶이 풍요로워진다.



1



2



3

### 1 민족의 화가 이중섭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한국의 정서를 그린 작가 하면 가장 먼저 이중섭이 떠오른다. 그는 서양회화의 기초 위에 한국 고유의 미의식을 담아내고자 했다. 그의 작품엔 어린아이 같은 해학이 있는가 하면 자유롭고 유려한 아름다움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그의 탄생 100년, 작고 60년을 기념해 국립미술관 역사상 최초로 이중섭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를 위해 뉴욕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총 60개 소장처에서 '황소' '육지도 풍경' '길 떠나는 가족' 등 그의 대표적인 유화와 은지화, 엽서화, 편지화들을 보내왔다. 전시는 6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문의 2188-6000

이중섭 '육지도 풍경', 종이에 유채, 39.6×27.6cm, 1953.

### 2 조형시인 김환기

한국 현대미술의 중추적인 흐름을 주도했던 화가 김환기를 위해 1992년 환기미술관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2016년, 미술관을 설립했던 김환기의 부인 김향안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고 김환기가 노래한 자연과 인간애를 다시 느껴볼 기회를 마련한다. 그의 대표적인 유화 작품과 더불어 미공개 작품 그리고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 시기를 그린 초기작부터 1970년대 그 특유의 전면 점화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3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환기미술관에서. 문의 391-7701

김환기 '7-VII-74', 코튼에 유채, 235×183cm, 1974.  
김환기 '14-III-72 #223', 코튼에 유채, 254×200cm, 1972.

### 3 유명한 무명

유명해지기 위해 질주하는 인간은 어떻게 유명하게 되며 반면 왜 무명으로 남는가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유명 혹은 무명이란 무엇일까. 이를 위해 국내외의 전도유망한 작가 7인이 모여 각기 다른 분야에서 가지고 있던 다양한 입장을 동일한 시공간에 드러내고자 한다. 김명나는 뉴욕 개인전에서 발표했던 'SET'의 연작인 'SET v.4'를 선보인다. 과거의 개인 작품을 모아 각 개체에서 발견되는 시각 요소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작품이다. 김희천은 비디오 작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사람들 사이의 순환고리를 보여준다. 그 외에도 많은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제 갤러리에서. 문의 735-8449

김희천 'Soluseek/Pegging/Air-twerking', HD Video, 21min, 2015.